

1950년대 전쟁기 피난문단과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매체 연구*

문 선 영**

차 례

- | | |
|--------------------------|-----------------------|
| I. 들머리 | IV. 『파랑새』의 지역문학적 대응방식 |
| II. 『소년세계』와 피난문단의 탈이념주의 | V. 마무리 |
| III. 『어린이 다이제스트』의 이상과 교의 | |

I. 들머리

1950년대 전쟁기는 글쓰기 토양 자체가 척박했던 시기이다. 작가의 일상적 공간이 문학적 상상력의 출발점이라 볼 때, 전쟁으로 인한 일상성의 파괴가 글쓰기 지형을 송두리째 뽑아버렸기 때문이다. 오래 지속되던 일상적 삶은 파괴되고 기존의 상징적 질서조차 분열되어 버린 탓이다.¹⁾ 그러나 이렇듯 척박했던 시기에도 목적의식의 성격이 다분했던 전쟁기 문학의 일반적 흐름 속에서 아동문학의 영역은 앞선 시기의 두터웠던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꾸준하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2-AS1511).

** 부산대학교 강사

1) 문선영, 『1950년대 전쟁기 장시 연구』(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2002) 참조.

게 매체 활동을 전개하였다. 아동문학을 전쟁기 문학의 한 영역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까닭이다.

전쟁기 아동문학은 피난지인 대구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대구와 부산은 전쟁 중 주된 피난지이자 거점이며, 새로운 탈출구이기도 했다. 피난지는 전쟁으로 인한 이데올로기나 생활의 절박함을 담아내는 데 아동문학인들의 감각과 체질이 더욱 문제되던 공간이기도 했다. 전쟁기 허무의 공간이라는 피난지에 대한 심리적 차원 외에도 상당한 현실적 문제점 역시 여럿 제기되었다. 그래서 전쟁기 피난문단의 정조는 전쟁으로 인한 상실감과 평화를 열망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이것은 성인문학과 아동문학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자질이기도 하다.

두루 알다시피 아동문학은 대체로 성인문학과 구별하려는 편의적 용어에 불과하다. 이때 성인문학과 뚜렷이 변별되는 점은 아동문학의 기능적 측면이다. 특수문학으로서 아동문학은 특수성에 상응하는 기능, 곧 목적과 사명을 가지기 마련이다. 그것은 단적으로 예술성을 상실하지 않는 테두리 속에서 교육성, 곧 아동의 단계적 심신계발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동문학의 독자가 아동이나 동심을 가진 아동적 성인임을 감안할 때²⁾, 이러한 아동문학의 기능적 측면은 전쟁기 혼란상을 해명하고 나아가 민족적 전망을 예견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 전쟁기에 아동문학이 의미있는 까닭은 아동문학이 지닌 이러한 의의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쟁기 경남·부산지역의 아동문학 매체를 중심으로 전쟁기 아동문학의 현실을 살피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때 문학적 현실이란 문단 현실이다. 우선 전쟁기에 발간된 아동잡지를 중심으로, 긴 파괴와 학살이 난무하던 시기에 문학의 희망 담론으로 마련된 전쟁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단의 지형도를 그리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전쟁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매체를 통해 그 시기 피난지 아동문학의 성격과 의의를 도출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전쟁기 아동문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아동문학 그 자체의 개별 진보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³⁾

2) 이재철, 『아동문학개론』(문운당, 1967), 14쪽.

3) Klaus Doderer, 『아동문학에 나타난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한국아동문학연구』

전쟁기에는 『학원』, 『수험생』, 『중학시대』, 『꽃수레』⁷⁾ 등의 학생 잡지 매체와 소학생 작문집⁴⁾, 소년소녀 장편소설⁵⁾과 동시집⁶⁾ 등의 아동문학단행본이 두루 출간되었다.⁷⁾ 이 글에서는 여러 매체 가운데 『소년세계』, 『어린이 다이제스트』, 『파랑새』를 중심으로 전쟁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구체적인 실질에 다가서고자 한다.⁸⁾ 『소년세계』의 이원수, 『어린이 다이제스트』의 강소천, 『파랑새』의 김용호들의 역할관계를 살피는 일은 전쟁기 당시 아동문학의 문단현실을 헤아릴 수 있는 또 다른 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체들의 1차 문헌 사항을 갈무리하여 전쟁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역동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물론 이외에도 강소천 주도로 발간된 『새벗』⁹⁾ 또한 논의를 심화하는 데 덧붙여야 할 자료들이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해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손동인이 엮은 『꽃수레』(1952.3), 신소년사 부산사무소에서 엮은 『별』(1951.11), 김영일이 편집책임 맡은 『中學時代』(1952.12), 대양출판사에서 간행되기 시작하여 이후 청소년들의 꾸준한 벗이 된 『학원』(1952.11)들은 잡지의 간행이 지속적이지 못하거나 아동문학을 넘은 학생잡지이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II. 『소년세계』와 피난문단의 탈이념주의

『소년세계』는 이원수 주재로 1952년 7월에 창간호를 낸 종합 아동잡지이다.

7) 한국아동문학학회, 1997), 13쪽 참조.

- 4) 윤석중아동연구소에서 낸 『내가 겪은 이번 전쟁』(박문출판사, 1953)이 대표적이다.
- 5) 김혁제의 『즐거운 작장가』(명문당, 1951)와 이종환의 『갈매기의 노래』(새벗사, 1952)를 들 수 있다.
- 6) 김영일, 『다람쥐: 兒童自由詩集』(1950), 김상옥, 『석류꽃』(현대사, 1952), 서덕출, 『봄편지』(자유문화사, 1951)가 대표적이다.
- 7) 윤석중아동연구소에서 낸 『내가 겪은 이번 전쟁』(박문출판사, 1953)도 기억할 만하다.
- 8) 이후 마련되는 작업은 전쟁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매체 가운데 신문과 기타 매체들이다.

월간으로 기획되었고 4·6배판에 50여 면 정도로 1956년 9월, 통권 40호까지 나온 50년대 주요 아동잡지 가운데 하나이다.⁹⁾ 한국전쟁 당시 피난지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에서 창간되었다. 대구는 이미 광복기에 우파 아동문학 매체였던 『새싹』(1946년 1월 창간)과 『아동』(1945년 12월 창간)을 발간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앞선 매체들이 대체로 정치 사회적 관점을 배제한 순수 아동문학을 지향했던 것처럼 『소년세계』 또한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빚어진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대체로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배제한 순수 아동문학을 표방하였던 것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박목월을 제외하면 광복기와 전쟁기에 대구지역에서 아동문학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 문인이 드물어 『소년세계』가 광복기의 매체 발간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여겨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적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까닭은 광복이후의 매체 발간 경험에다 후방지역에 자연스럽게 피난문단이 형성되었던 대구지역이 갖는 특수성에 기댄 바 크다 하겠다.

『소년세계』는 창간사에서 드러나듯 1950년대의 상업주의에 의해 통속화로 치닫던 아동문학의 옹호를 위해 순문예지적 성격을 표방하였다. 『새벗』, 『어린이 다이제스트』와 함께 당대 3대 아동지로 꼽혔다. 따라서 내용도 영리적 목적을 떠나 문예물 중심으로 편집되었다. 그것은 또한 전통적으로 대구지역이 갖는 독특한 탈이념적인 성향과도 맞물리는 것이다. 이러한 매체적 성격으로 1950년대 전반기 아동문학의 중추적 발표 기관으로 아동문학의 통속 팽창 현상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던 것이다.¹⁰⁾

두루 알다시피 전쟁기 피난문단의 상황은 성인문단이나 아동문단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혼란스러웠고, 출판계의 상황 또한 거듭된 불황 속에 처해 있었다. 그리하여 이전 성인문학을 담당했던 문학인들이 대거

9) 『소년세계』는 1952년 7월 피난지 대구에서 창간되어 1953년 11월호까지 대구에서 발간되었다. 이후 1954년 서울로 옮겼는데 자금난으로 1955년부터 휴간이 잦더니 1956년 9·10월 합병호(통권 40호)를 끝으로 폐간되고 말았다. 이원수, 『戰時中の『소년세계』와 文學運動』, 『현대문학』 1965년 8월호, 244쪽.

10) 이원수는 당시 대중잡지가 에로티시즘과 대중영화의 통속성을 갈구함으로써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보고 이때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순결한 정신을 지켜 주자는 마음으로 문학의 힘찬 영향력을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가 『소년세계』를 발간한 취지가 된다. 이원수, 앞의 글, 242쪽 참조.

아동문학 영역에 참가한 사실은¹¹⁾ 발표 지면이 제한된 당대의 어려운 상황 때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년세계』뿐만 아니라 전쟁기 발간된 모든 아동매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소년세계』는 김소운을 편집고문으로 하여 오창근, 이원수, 김원룡, 최계락, 정영희 등이 발간에 힘을 쏟았다. 오창근이 처음 뜻을 폈으나 호를 더해 가면서 전국적 지명도가 높은 이원수가 실제로 나선 매체이기도 하다. 여기서 『소년세계』가 이원수 주재로 발간된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곧 이원수의 문학적 성격과 문단 권력 이데올로기를 파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쟁기 『소년세계』가 발간될 무렵 이원수는 문단에서 거의 독보적 존재로 군림하였다. 당시 유명한 문학인들 대부분이 월북하였던 터라 이원수에게는 문단 권력을 장악하는 데 더 없이 유리한 입장이었던 덕분이다. 이처럼 『소년세계』가 비록 대구에서 발간되었으나, 필진들과의 역학관계는 당시 문단 내 세력 동향을 살피는 데 좋은 자료거리가 아닐 수 없다.

잡지의 편집고문을 맡은 김소운이 부산 영도 출신이고 편집을 맡은 최계락과 김원룡도 경남·부산 출신이었으며, 주요 필진으로 참가한 조연현과 최인욱, 설창수, 박목월, 이종기, 이종택 정도가 피난지 출신이었다. 그밖에 필진들은 피난지와는 무관한, 그야말로 이산의 아픔을 지닌 외부인들이었다. 피난지 출신인 필진들은 모두 이원수와 막역한 사이였고, 그밖의 사람들 또한 말할 필요도 없다. 이때 이원수의 문단 권력이 전쟁기 아동문학 매체에 여실히 적용된 셈이다. 이원수는 광복기 조선문학건설본부 아동문학위원회의 기관지였던 『아동문학』(1945년 12월 발간)과 역시 좌파적 시각이 다분했던 『진달래』(1948년 12월 발간), 우파 아동지로서 계몽적 색채가 두드러졌던 『어린이』(1948년 5월 복간)와 『소년』(1948년 7월 창간) 등에 이름을 올리며 작품을 발표하고 있을 만큼 좌우파 문단의 대립 속에서도 자기보신의 행보를 남달리 보여준 이력을 지니고 있다. 1948년 이후 좌익 문단이 붕괴되고 난 뒤에는 전국아동문학작가협회의 회원으로 일하며 아동문학진영 내 자신의 문학적 입지를 넓혀 나기도 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서울에 남았다가 국군 인천상륙작전 후 최병화와

11) 정비석, 방기환, 이종환, 곽하신, 박계주, 최태웅, 김광주, 최인욱, 최정희, 안수길, 홍효민들이 대표적이다.

함께 북행하다 귀환하였다.¹²⁾ 이후 대구에 적을 두면서 『소년세계』를 창간하였다. 전쟁기 이전 이원수의 문학 성향은 “한국에서 최초로 현실의 밑바닥을 아동문학으로 형상화한 작가”¹³⁾라고 평가될 만큼 다분히 좌파적이었다.¹⁴⁾ 그러나 전쟁 후 남하한 이원수는 많은 문인들이 월북 또는 납북되는 상황에서 나름의 문학적 입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때 그가 선택한 아동문학은 과거 원죄를 청산하고자 한 의도에 매우 부합한 분야였다. 아동문학이 갖는 동심천사주의적 특징이 전쟁 전 이원수가 보인 좌파적 성향을 무마시키고 나아가 전쟁 후 이원수의 문단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셈이다.

이원수는 이동원이라는 필명으로 『소년세계』에서 시¹⁵⁾, 수필¹⁶⁾, 동화¹⁷⁾, 소설¹⁸⁾ 등 다양한 갈래를 선보이고 있다. 『어린 동생들의 페이지』란에 선보인 『정기와 딸래』는 전쟁의 난리통에 동생 순옥을 잃은 정기가 동생과 인형을 동일시함으로써 전쟁의 참상을 환기하고 있는 수필이다. 인형과 함께 하는 정기의 하루 일상의 풍경은 무엇보다 상실과 보상이라는 전쟁의 양가적 사회심리를 잘 표현해 내고 있다. 한 쪽 분량의 글이지만 오히려 전쟁기 상황을 분량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12)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계몽사, 1989), 287~288쪽.

13) 공재동, 『이원수 동시 연구』(동아대 석사학위논문, 1990), 5쪽. 이러한 현실주의에 주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으로 김지은의 『한국 근대 현실주의 동시 연구』(경남대 석사학위논문, 1999)가 있다.

14) 이러한 성향의 작품으로 「헌 모자」, 「절레꽃」, 「교문 밖에서」, 「이삿길」, 「전봇대」, 「나무 간 언니」, 「자전거」, 「보오야 넌네요」, 「개나리 꽃」, 「부르는 소리」 등이 있다.

15) 「소쩍새」(『소년세계』~12호, 1953년 6월, 17쪽)와 「여울」(『소년세계』~5호, 1952년 11월, 15쪽)이 있다. 이외 「노래와 감상」 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동시 감상을 『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2호, 1953년 2월호)에 실기도 했다.

16) 「굉장한 이름」(『소년세계』~창간호, 1952년 7월, 22쪽), 「정기와 딸래」(『소년세계』~3호, 1952년 9월, 5쪽), 「가을은 닦아 온다」(『소년세계』~3호, 1952년 9월, 16쪽), 「강한 편과 약한 편」(『소년세계』~5호, 1952년 11월, 11쪽), 「뽕꼭 시계」(『소년세계』~4호, 1952년 10월, 31쪽), 「절레꽃」(『소년세계』~11호, 1953년 5월, 19쪽) 등이 있다.

17) 「달나라의 어머니」(『소년세계』~11호, 1953년 5월, 2쪽), 연재동화 「뽕씨의 모험」(『소년세계』~13호, 1953년 7월, 22쪽)이 있다.

18) 사진소설 『푸른 길』(『소년세계』~10호, 1953년 4월, 8쪽)이 있다.

‘사진소설’이라는 특이한 갈래로 발표한 『푸른 길』도 흥미롭게 읽힌다. 내러티브 구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삽입한 『푸른 길』은 『나룻터』 → 『즐거움과 괴로움』 → 『누나를 찾아서』 → 『신문 팔이』 → 『뜻밖의 자리에서』 → 『푸른 길』의 연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인공 명재와 그의 누이 명희의 삶을 통해서 전반기 가난의 문제를 통하여 가족애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전반기에 가족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화해와 위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년세계』는 마산출신 이원수의 주도 아래 나라잃은시기부터 문학 활동을 펼쳐 온 이주홍, 김말봉, 최인옥이 힘을 보태었고, 광복기에 들어 각종 아동지에 작품을 올리기 시작했던 김소운, 김원룡, 최계락, 정진업 등이 주요 필진으로 참가했다. 표지그림과 삽화, 장정을 이주홍과 김용환, 김성환 형제가 번갈아가며 도맡았던 점도 이채롭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점은 광복기부터 이 지역에서 『등불』~『등 지역 문학매체를 이끌었던 설창수와 1950년 고교 재학 시절 『문예』로 등단했던 이형기가 『소년세계』를 빌어 동시를 발표하고 있는 점은 각별하게 읽힌다.

(1)

열두살 나는야
엄마 없이 자란 아이

무눈에 개고리만
우는 밤을

어텔 가자고
흘러가는 별 ………

어째서
너만이
떨어져 가나.

— 이형기, 『흘러가는 별』 가운데서(『소년세계』~제4호, 16쪽)

(2)

실오라기 꼬불 꼬불

그 길로 누가 갔나.

셋파란 빛 등성으로
두오라기 오솔길.

엄마 잃은 두 남매
엄마 찾아 갔었지.

— 설창수, 『오솔길』 가운데서(『소년세계』 4호, 16쪽)

인용시에서 “엄마 없이 자란 아이”와 “엄마 잃은 두 남매”는 각각 전쟁이 낳은 이산의 문제를 표상하고 있다. 나아가 고아의식을 통해 민족의 근원적인 상실감을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실감은 자칫 자폐적 공간에 시적 화자를 가둘 위험이 다분하다. 여기서 “오두 가두 못하”는 상황에서 짐작되는 바, 이러한 상실감은 역사적 수난을 통한 상상력, 곧 수난의 상상력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탈출구를 마련할 때 비로소 소멸될 것이다. 별과 오솔길의 아프고도 비밀스러운 지점 끝에는 분명 삶의 질서와 의미에 대한 원리가 존재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흘러가는 별』과 『오솔길』은 철저하게 아동을 독자로 삼은 아동문학이기 때문이다.¹⁹⁾ 설창수는 이 외에 『소년세계』 T1호에 동시 『빨기 노래』를 발표하였다. 설창수는 이경순, 조진대와 함께 『三人集』(영남문학회, 1952)을 발표할 정도로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했는데도, 아동문학 영역에서 작품 편수가 적은 까닭은 그가 영남문학회의 활동과 진주 지역의 문화운동에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탁에 의해 한두 편 작품을 실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범문단적 모양새를 갖추려 한 이원수의 기획에 따른 필진의 구성이었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형기는 인용시 이외에도 『버들피리』(『소년세계』 T0호, 1953년 4월, 17쪽)를 발표하고 있는데, 『흘러가는 별』에서 보인 상실감과 절망감이 『버들피리』에 이

19) 권정생의 다음 말은 이 대목에서 주의깊게 들린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받는 것이 어린이고, 보이는 대로 배우는 것이 어린이이다. 외세의 침탈에 의해 배고프게 살아온 아이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불구가 된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들에게 과연 어떤 꿈이 있는 걸까? 이런 어린이들이 부를 노래는 어떤 것이어야 하고 어떤 내용의 이야기책이어야 할까?”(권정생, 『아동문학이 외면했던 고난 속의 동심』, 한국어린이문학협회의회 엮음, 『우리어린이문학』, 지식산업사, 1993).

르게 되면 꿈의 상징들로 견혀지고 있다. 설창수가 구가하고 있는 『빨기 노래』(『소년세계』~11호, 1953년 5월, 7쪽) 역시 “올 이도 갈 이도/ 입자 없는” 『오솔길』의 혼돈을 말끔히 걷어내고 있다. 화창하고 유쾌한 어조가 사뭇 희망적인 순간이다. 꿈의 문학은 물론 아동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에서 요구하는 신념의 체계이다. 이러한 꿈의 문학은 아동뿐만 아니라 삶의 아름다운 질서를 존중하려는 모든 이의 가슴속에서 여전히 꿈꾸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희망 담론은 아래 인용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매서운 찬바람에 매화는 피고
언땅 눈 속에서 보리싹은 자란다.

판잣집 속에서도 글 읽는 소리
헤진옷 입고서도 웃는 동무들.

전쟁은 아직껏 끝이 안나도
우리들은 자라네 거칠 것 없이.

고향은 북쪽이라 저 먼 하늘
새봄은 언제 오나 기다리면서

피로움 견디면서 우리들은 자란다
언땅 눈 속에선 보리싹도 자란다.

— 김원룡, 『자라는 우리』(『소년세계』~제8호, 28쪽)

이원수와 같은 마산 출신으로 『소년세계』~편집일을 맡았던 김원룡은 광복기 경남·부산 지역 아동문학인 가운데 이원수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인물이다. 광복기의 출판 편집 경험에다 이원수와 의 친분 관계에 힘입어 아동문화운동을 주도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기 그는 『소년세계』와 『어린이 다이제스트』에 시와 수필, 노래를 발표하고 있다.²⁰⁾

두루 알다시피 동시는 시적 요소보다 노래의 속성이 강한 동요로부터 시작

20) 『꿈에만 보는 서울』, 『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11호(1953년 11월호), 『五月이 오면』, 『소년세계』~11호(1953년 5월), 『자라는 우리』, 『소년세계』~8호(1953년 2월), 『가을은 닦아 온다』, 『소년세계』~3호(1952년 9월).

되었으므로 그 원형은 노래로서 운율적 흥미와 함께 집단 공동체적 공감의 정서를 안고 있다. 곧, 시인의 감정을 세계에 투사시키거나 어린이의 화법이나 시점으로 비인격물을 인격화한다거나 동화적 상상력과 시적 상상력을 동시에 수용하는 독창적인 양식이 동시문학의 원형인 셈이다.²¹⁾ 인용한 동시는 아이들의 비유로 ‘보리짖’을 채용함으로써 전쟁기 고난 극복 의지를 희원하는 노래이다. 김원룡은 비단 인용시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서도²²⁾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모순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낭만적 이상주의로 극복해 나가는 능동적 아동상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아동문학에서 분단 극복의 문제는 절대 명제일 수밖에 없다. 아이들에게 우리의 비극적 역사 체험을 들려줄 수는 있지만, 분단으로 인한 모순들을 고스란히 떠 넘겨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쟁이란 거대한 폭력은 항상 전투와 피난생활, 죽음과 굶주림, 폐허와 절망감 등 비극적인 제재를 동반하게 마련이다. 아동문학은 아이들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꿈과 정서를 심어주어야 한다는 문학적 인식이 전쟁이라는 폭력으로 불가피하게 돌출되는 참혹한 제재 선택을 기피하게 만들고 말았다. 우리 아동문학이 불행했던 우리의 역사를 담는 데 매우 편협하고 소극적이었던 점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분단현실에 서사구조로 접근해 가는 예로 ‘소년소설’인 최인옥의 『운동화』(『소년세계』~창간호, 20~23쪽), 단편소설인 최인옥의 『싸우는 병정』(『소년세계』~제8호, 12~13쪽)들이 있다. 특히 『싸우는 병정』에는 남이장군의 시를 군데군데 낭송하게 함으로써 역사적 고난기에 기개를 지니도록 유도하고 있다.²³⁾ 여기서 주인공 봉수는 이등병의 청년이라는 점이 눈여겨 볼 만한데, 아동문학지에 청년을 등장시킨 것은 미래의 강건한 모습을 예견함으로써 전쟁기 고단함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겠다. 정진업의 『병든 나무 - 전1막』

21) 이재철, 『한국아동문학연구』(개문사, 1983), 104쪽 ; 김용희, 『동심의 숲에서 길 찾기』(청동거울, 1999), 338쪽 참조.

22) 『길을 묻다가』(『소년세계』~창간호, 1952년 7월, 36쪽), 『자라는 우리』(『소년세계』~8호, 1953년 2월, 28쪽), 『五月이 오면』(『소년세계』~11호, 1953년 5월, 12쪽) 등에서 분단모순을 벗어나기 위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 가는 능동적 화자가 등장한다.

23) “백두산 많은 돌은 칼을 갈아 없어지고/ 두만강 푸른 물은 말을 먹여 말랐도다/ 사나이 스무살에 나라 일을 못한다면/ 후세에 늙가 일러 대장부라 하겠는고“

(『소년세계』 제5호, 20~25쪽)은 ‘동극’의 형식을 빌어 전쟁기 아동들에게 연극을 통한 행동성과 친취적 태도를 고취시키고 있다. 『각본을 읽을 때는』, 『연극하는 법』 등의 글을 동극 사이에 넣어 설명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연극교육 또한 겸하고 있다. 『싸우는 병정』처럼 『병든 나무』에서도 노래를 삽입함으로써²⁴⁾ 아이들의 통합된 흥미를 자아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듯 『소년세계』는 피난문단이 보여 주는 의의, 곧 일상적인 삶에 던져진 문제를 공동체적 관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각을 잊지 않았다는 점에서 탈이념주의의 성향을 보인다. 『소년세계』에 동시를 비롯하여 동화, 소설들이 실려 있는 것은 여느 잡지와 마찬가지로이다.²⁵⁾ 곧 전쟁의 상황에서도 문예적인 성격을 강조한 잡지의 취지가 그 단적인 예다. 그러나 『소년세계』가 전적으로 순문예지적 성격을 지녔다²⁶⁾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독자와의 친밀한 소통체계를 위하여 아동의 흥미를 끌 만한 자리를 군데군데 마련하고 있다. 창간호의 『차례』를 보면 이러한 사실은 쉬 확인된다.

※삽화 : 변중하 · 이순재 · 김성환

※표지 : 변중하

【동시】 피꼬리, 이상노(11쪽)

그림자, 장만영(18쪽)

산에서, 최계락(48쪽)

떠나보고야, 이덕수(3쪽)

소라, 잘 꼭토(32쪽)

【사진소설】 희망의 노래, 이규환(6쪽)

-
- 24) “봄이 와서 꽃 피고/ 나비는 날고/ 아지랑이 먼산에/ 끼이는 날에/ 노고지리 종달이/ 노래하면요/ 우리들도 라라라/ 따라하지요”라는 여주인공 애순의 노래와 “가을에는 단풍을 들여주고요/ 여름에는 그늘을 지어주고요/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주지요/ 그러기에 나무는 좋은거래요”라는 마지막 수길의 노래가 그것이다.
- 25) 이때 소설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사진소설, 소녀소설, 연재소설, 과학모험 연재소설 등 소설의 갈래를 세분한 것은 보다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을 보이겠다는 매체적 소견이었다. 3호의 모험소설, 4호의 소년소설들도 마찬가지이다.
- 26) 이재철은 『소년세계』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순문예지적 성격을 꼽았는데, 이에는 이 잡지가 비영리적 성격을 지닌 점과 그것이 다른 부차적 목적이 없다는 그 순문예지적 교육성이 해당한다. 이재철, 『韓國現代兒童文學史』(일지사, 1978), 462~465쪽.

- 【소녀소설】 운동화, 최인욱(20쪽)
- 【연재소설】 잃어버린 학급비, 정비석(46쪽)
- 【과학모험 연재소설】 아버지를 찾으러, 정민(12쪽)
- 【임진년】, 차경삼(16쪽)
- 【싸우는 우리공군】, 마해송(29쪽)
- 【간절히 바라는 것】, 오창근(14쪽)
- 【굉장한 이름】, 이동원(22쪽)
- 【과한 후에 가는 곳】 (10쪽)
- 【길을 묻다가】, 김원룡(36쪽)
- 【동화】 푸른 연, 김요섭(34쪽)
- 【소년문장독본】, 김소운(24쪽)
- 【물의 재주】 (18쪽)
- 【편지】 피난간 아동들에게, 어효선(25쪽)
- 【음악얘기】 노래를 부르자, 구왕삼(38쪽)
- 【과학】 비타민의 무리들, 홍순정(30쪽)
- 【즐거운 일요일】 (40쪽)
- 【연재만화】 수남의 모험, 김룡환(26쪽)
- 【만화】 즐거운 우리학교 점심시간, 김성환(4쪽)
- 【우리들의 작품】 (44쪽)
- 【피난학교 방문기】 (42쪽)
- 【동무 소식 알아보기】 (49쪽)
- 【정다운 사진첩】 어른과 어린이(51쪽)

이때 『소년세계』가 지향하는 대중적인 매체의 성향은 동시나 동화, 소설들보다는 오히려 이를 제외한 다른 면들에서 찾아진다. 『상타기 문제』라든가 『작품모집』, 『사진모집』 기사가 실려 있고, 『소년세계 앨범』란에서는 일명 ‘정다운 사진첩·어른과 어린이’로서 작품을 실은 기성문인과 아동들의 사진을 선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즐거운 일요일』에서는 ‘오술대회’나 ‘비밀의 열쇠’, ‘X광선 기계 만들기’들이 주로 호기심이나 생활과학적 지식을 불러일으키는 데 바쳐져 있다. 특히 피난 전 주소나 학교를 통해서 잊혀진 친구를 찾는 『동무소식알기』나 『피난학교 방문기』들은 전쟁기 아동문학 잡지의 성격을 나타내는 진면목이라 할 만하다. 아울러 2호부터 보이는 『역사 얘기』나 『과학자 얘기』들 역시 전쟁기 희망 담론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기획들이다. 그리고 아동독자를 보다 친밀하게 유도하는 장치로 만화나 삽화, 사진들을 자주 채용한다. 또한 전인적 교육을 염두에 둔 듯, 『음악 얘기』나 『미술강좌』들도 눈

여겨 볼 만하다. 결국 『소년세계』는 순문예지적 성격보다는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한, 보다 친숙하고도 독자 배려의 성향을 잊지 않은 전쟁기 아동잡지인 셈이다.

Ⅲ. 『어린이 다이제스트』의 이상과 교의

『어린이 다이제스트』는 『새벗』, 『소년세계』, 『학원』, 『파랑새』의 뒤를 이어 1952년 9월 피난지 부산(대청동 다이제스트사)에서 창간호가 나왔고, 1953년 12월호·1954년 1월호 합병호(통권 14호)로 중단되었다. 4·6판으로 60~80여면의 원색 사진 또는 그림을 표지화로 장정하였으며, 그 규모나 체제는 매우 단출하였다. 편집겸 발행인은 이춘우였고 강소천이 주간을 맡았다. 박영중, 주요섭, 강소천, 김영일, 박경중, 박은중, 김요섭, 장수철, 백양들이 주로 아동문학 작품을 발표하였고, 이외 주요 필진으로 박창해, 홍용선, 최태호, 조기환들이 참여했다. 주로 강소천(함남), 김영일(황해도), 김요섭(함북), 장수철(평양) 등의 이북 지역의 문인들이 대거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편집주간을 맡았던 강소천은 『새벗』의 주간을 맡을 만큼 아동매체 운동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1931년 『아이생활』에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나섰던 이력이다 『아이생활』이 평안도 지역에 기반을 둔 기독교 잡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소천이 주재한 아동매체들의 성격을 일정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다이제스트』는 당시 일반 대중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25개 국역의 한국판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모방하여 만든 종합 아동지로서, “소화한다. 알뜰히 읽는다. 잘 생각한다. 알맹이를 뽑아 낸다”는 기치를 앞세워 상재되었다.

(1)

우리 『다이제스트』는 이름 그대로 여러분이 읽어서 알 수 있도록 맛있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딱딱한 재료를 가지고라도 잘 소화되도록 만들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여러분을 울리고, 웃기고, 흥분시키는 그런 영양이 되지 않는 굳것질 같은 글은 신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한 편 한 편이 다 여러분의 삶이 되고 피가 되고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글만을 신지로 합

니다.

(2)

- 【동화와 이야기】 백조 왕자, 안텔센(2쪽)
 종소리 울리는 언덕(34쪽)
 커다란 고양이(26쪽)
 윌리암 텔 - 이야기, 홍용선(30쪽)
 박 송아지, 강소천(56쪽)
- 【과학자와 과학이야기】 뉴우톤(12쪽)
 해는 어떤 것인가? 오연석(42쪽)
 재미 있는 숫자 계산(36쪽)
- 【사회 생활 이야기】 옛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왔는가?(50쪽)
 칭링과 텅링(20쪽)
- 【노래와 노래 이야기】 무슨 냄새가 날가?(10쪽)
 소라(37쪽)
 파리아(39쪽)
 닭(41쪽)
 거울 장수 할아버지, 박경중(55쪽)
 노래 이숙(49쪽)
- 【동요 감상】 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노래, 백양(16쪽)
- 【오락실】 노래미파 수수께끼(46쪽)
 바보의 울음 천재의 대답(51쪽)

인용글 (1)의 창간사에서 밝힌대로 아동들에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책을 읽는 즐거움과, 독서의 힘” 기르려고 한 의도를 부각시킨다. 다른 몇 전쟁기 아동지에 비해 분량이 적은 점, 독자의 참여보다는 대부분 필진들의 작품들과 기획들로 꾸며지고 있는 점들이 단적인 예다. 인용한 (2)창간호의 차례에서 짐작하듯이 『어린이 다이제스트』는 대부분 세계 명작동화와 과학 이야기, 위인전, 사회 생활 이야기 등 외국작품의 소개와 실용적 차원에서 도울될 만한 이야깃거리들 위주로 짜여져 있다. 그러므로 다분히 교화적인 목적성을 강하게 드러낸 종합 교양지의 성격을 띤 아동지라고 할 수 있다.²⁷⁾ 이러한 국제성마저 불사하는 내용의 개방성과는 달리 편

27) 종합교양지로서 『어린이 다이제스트』가 지닌 교화적인 요소의 증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취재 대상의 폭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어린이 다이

집의 방법에서는 의외로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전호를 검토해 보면, 창간호부터 중간호까지 차례의 순서와 내용이 거의 변함이 없다. 그리고 집필자의 이름조차도 몇 문학작품 이외에는 거의 무기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권 2호부터 독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공문을 내놓긴 하였지만 중간호까지 대부분 주요 필진들에 의한 고정된 글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여느 전쟁기 아동지보다 동요에 대한 관심을 듬뿍 쏟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창작 동요와 번역 동요』(1권 4호), 『노래와 감상』(2권 1호, 2권 2호, 2권 3호, 2권 5호, 2권 6호, 2권 7호, 2권 8호, 2권 9호), 『동요』(2권 10호), 『노래』(2권 11호, 2권 12호)들에서 많은 동요들을 듣는 소중한 기쁨 또한 누릴 수 있다. 노래라는 특성으로 아동들에게 보다 손쉽게 다가가려는 기획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그리운 노래집』 연재가 각별하다. 한정동(2권 3호), 이원수(2권 5호), 목일신(2권 6호), 김영일(2권 7호), 박영중(2권 8호), 강소천(2권 9호) 등 당대 유명한 동요 시인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획은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부르는 동요를 통해 아동들의 따뜻한 심성을 북돋우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한편, 『위인 이야기』로 ‘문화의 개척자들/ 한글을 꽃피운 어른’인 최현배를 소개한 난(2권 10호)도 눈 여겨 볼 만하다. 한글을 매개 삼아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 확립이 무엇보다 전쟁기 아동들에게 절실하리라 의도된 까닭이다.

그리고 주간인 강소천이 지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2권 6호부터 연재되기 시작한 『구약 성경 이야기』도 주목된다. 교화적 수단으로서 종교를 선택한 셈이다.

『어린이 다이제스트』는 강소천 등 경남·부산지역 외 외부인들이 피난 와 발간한 전쟁기 아동종합지이다. 이산의 문제를 빠뜨리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스트』는 국적 불명의 모호한 잡지라고 칭해질 정도로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의 ‘유익한 것’이면 무엇이든 다루었다. 둘째, 혼화 형식의 글은 전호를 통틀어 한 번도 게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태도는 독자의 자율성을 인정한 성인용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편집성을 모방한 결과이다.

무너진 고향집에 누가 있다고
이다지도 가고 싶고 그리울까요?
앵두 익고 자두 여는 자하문 밖은
어린 시절 내 놀던 못 잇을 고향.

꿈에만 가 보는 곳 그리운 서울
내 동무들 어느 세 모두 갔는데
서늘한 달밤에 혼자 남아서
가는 날만 생각다 잠이 듭니다.

— 김원룡, 『꿈에만 보는 서울』(『어린이 다이제스트』~제2권 제11호, 1953년 11월호, 39쪽)

자기의 삶터, 곧 고향에서 내쫓기다시피 밀려나오는 것이 이산의 속성이다. 한국전쟁은 거대한 이산의 거꾸집이 된다. 한국전쟁은 이산을 낳고 그 이산이 귀소본능을 더욱 강화하면서 동심을 놓지 않으려는 아동문학은 전쟁의 거대한 힘에 의해 이리 쫓이고 저리 쫓이는 민중들의 고단하고 남루한 삶의 가감없는 사생이었다. 인용 동시는 이러한 이산문제를 기초음으로 깔고 피난지에서 고향을 그리며 아이의 마음을 형상화하는 데 바쳐져 있다. 전쟁기 아동문학은 대부분 하나의 에피소드적 소재로 심각한 상흔을 치유하고자 하는 대유적 방법과 화해의 구도를 통해 자아의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만큼 전쟁기 아동문학은 정서적 환기를 중요한 문학적 규범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주간을 맡은 강소천은 한국전쟁 후 홍남에서 철수하는 군부대를 따라 월남하여 부산에서 문교부 편수국에서 근무하며 1952년 『어린이 다이제스트』~주간이 된다. 이후 『새벗』사 주간, 『아동문학』~편집위원도 맡으면서 이른바 한국 아동문학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어린이 다이제스트』~주간을 맡으면서 강소천은 『아이생활』과 같은 잡지 발간을 의도한 듯하다. 그러나 피난지문단에서 강소천의 뜻은 온전히 발휘되지 못했다. 이저런 사정으로 14호로 중단된 것도 그렇고, 특히 전쟁기 임시수도에서 발간한다는 사실이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부산의 아동문학의 터를 다지는 데 큰 공헌을 한 사실은 잊을 수 없다.

『어린이 다이제스트』지는 결국 국적 불명의 모호한 내용과 편집의 보수성

때문에 다소 단출하고 딱딱한 아동지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종래의 아동지들에 비해 통속에 몰들지 않은 고고한 아동지였다는 점과 전문적 학과 위주의 부교재적 성격을 극복하고 아동의 정서 순화에 기여했다는 점, 이러한 사실들로 과거 아동지들이 지녔던 계몽적 문화운동성을 탈피하였다는 점에서²⁸⁾ 『어린이 다이제스트』는 전쟁기 중요한 아동지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지역문인의 활동에만 견준다면 『어린이 다이제스트』를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자산으로 강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실제 이원수가 동시감상 『아름다운 마음』(제2권 제2호, 1953년 2월호), 『그리운 노래집·이원수 선생편』(제2권 제5호, 1953년 5월호)을, 김상옥이 노래 『달밤』(제2권 제7호, 1953년 7월호), 그리고 인용한 김원룡의 노래가 『어린이 다이제스트』에서 엿볼 수 있는 경남·부산 지역문학인들의 작품 목록 전부이다. 하지만, 전쟁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부산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던 아동매체의 발간은 한국문단의 채편으로 인한 부산지역 피난문단의 독특한 경험이므로 지역문학의 자산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IV. 『과랑새』의 지역문학적 대응방식

『과랑새』는 마산 출신 김용호의 주간으로 부산 협동문화사에서 1952년 9월 호로 창간호가 나왔다. 발행 겸 편집인은 김두일이었고, 주요 필진으로 동시·동요에 김용호, 한정동, 유치환, 손동인, 고원, 장만영, 김영일, 서정봉, 김장수, 이민영, 정영태, 유치환들이 참여했으며, 동화·소년소설에 이주홍, 김영일, 안수길, 최태호, 김광주들이 나섰다.

전쟁기에 유난히 학습의 성격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교화성과 시사성을 바탕으로 교육적 의도 아래 간행된 아동 종합지²⁹⁾가 바로 『과랑새』였다. 전쟁 상황이었기에 필진들 대부분이 아동의 교양을 강조한 대목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과랑새』는 부교재적 성격을 지녔다는 평판에서 자유

28) 이재철, 앞의 책 『韓國兒童文學史』, 475~476쪽.

29) 이재철, 위의 책, 374쪽.

로울 수 없었다. 또한 『파랑새』의 내용 구성이 문예물이 45%, 교재의 성격을 띤 일반 상식이 30%, 만화를 비롯한 일반 읽을거리가 25%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처음부터 부교재적 성격이 강한 아동지임을 천명하고 들어간 셈이다. 책 앞장 낱개에 『세계 그림 구경』이란 제목 아래 세계 명소를 화보로 담아 아동들에게 사회·생활적인 지식을 주려는 데서도 그 의도를 읽을 수 있으며, 책 뒷장 낱개에도 사진화보나 세계명화를 실어 풍부한 읽을거리와 볼거리를 강조한 과외 아동잡지였던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차례를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파랑새』~『제1권 제4호(1952년 12월호)의 차례이다.

※표지그림, 김용환

어린이 글짓기, 조연현(14쪽)

【소설】 어머니와 아버지, 김광주(6쪽)

【연재소설】 피리부는 소년, 이주홍(76쪽)

【만화】 초립대장, 김용환(48쪽)

소년 만화가, 김영순(80쪽)

【동요】 설달 그림, 서정봉(17쪽)

【동시】 그리움, 김장수(39쪽)

이른 새벽, 이민영(78쪽)

【지상견학】 시장 구경(54쪽)

동물의 웃는 얼굴(74쪽)

이달의 역사(56쪽)

이달의 풍속(66쪽)

웃음 보따리(72쪽)

누가 무엇을 발명했나(58쪽)

별과 꿀(72쪽)

파랑새 노래, 윤용하 곡(68쪽)

【크리스마스 특집】 그림소설 Ⅱ 찰다크로스 선물, 김용호(26쪽)

만화 Ⅱ 우리들의 크리스마스, 신동우(24쪽)

크리스마스란?(22쪽)

【동화】 실국화, 안텔센(62쪽)

스강 할아버지의 염소, 또오테에(40쪽)

달나라 이야기(19쪽)

【실험실】 삶은 달걀(46쪽)

【공작실】 연하장 만들기(60쪽)

상타기 발표(61쪽)

파랑새 신문(70쪽)

우체통(74쪽)
 상타기 문제(67쪽)
 우리 차지(86쪽)
 편집실 소식(90쪽)
 올해에 일어난 일(34쪽)

전쟁기 아동문학지로서 『과랑새』는 무엇보다 『충무공 특집』(1권 3호)³⁰⁾과 『임진왜란에 관한 전설』(1권 3호), 『역사 이야기/ 큰 뜻 품은 김유신』(2권 2호) 등 역사적 영웅 담론으로써 전쟁기의 수난사를 극복하자는 의도가 엿보이는 기획을 마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등장 영웅들 역시 피난지역 출신이라는 점도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재인식은 매호마다 『이달의 역사』와 『이달의 풍속』을 연재함으로써 더욱 부각되어 있고, 『말과 글과 겨레』(1권 2호) 역시 민족의 주체성을 되살리는 기획으로 의미심장하다.

『과랑새』가 보이는 교화성은 『나의 어린 시절』 연재로 더욱 굳어진다. 또한 세계 어린이들을 등장시켜 각 나라 자랑을 하고 있는 『우리 나라 어린이 자랑』(1권 1호)이라든지 『노오벨상 이야기』(1권 1호), 『유·엔이란』(1권 2호), 『세계 명작 이야기』(1권 2호)들 역시 거시적 안목으로 세계와 역사를 바라보자는 기획의 소산이라 할 만하다.

『과랑새』의 매체적 특성을 일러주는 또 다른 대목으로 『과학교실』이라든가 『사회 생활 교실』, 『셈본교실』, 『예능교실』, 『체육교실』, 『공작실』, 『실험실』, 『산수교실』, 『꼬마상식』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실용적이고도 구체적인 지식 학습의 효과를 지니면서 아동들에게 전쟁기 상황에 대비하는 지식의 검비를 일러주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아동들이 서로의 안부나 소식을 전하는 『우체

30) 이은상의 『충무공 노래』(시), 이주홍의 『승전고』(연극), 김용호의 『충무공과 남해바다』(수필)가 그 대표적 내용들이다. 특히 주홍의 『연극 승전고 한막』(76~85쪽)이 흥미로운데, 임진란의 마지막 싸움날인 무술년 11월 18일 밤과 19일 아침 사이, 노랑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 등장인물로 삼도 수군 통제사인 이순신, 중위장인 유흥, 명나라 수군 도독인 진린, 통제사의 말아들인 회, 통제사의 조카인 완, 그 밖에 늙은 수병 한 사람과 많은 젊은 군사들을 등장시킴으로써 비교적 스케일이 큰 연극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웅장한 볼거리 제공은 당대 전쟁기의 침체된 상황을 극복하는 데 활력을 주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난세에 영웅 담론의 효용성은 그 어느 시기보다 유효했으리라 본다.

통』이나 아동들의 투고로 이루어지는 문예란인 『우리 차지』, 퀴즈 풀이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상타기』, 난들은 독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장이어서 무엇보다 전쟁기 침체된 문단에 활력을 불러 모으는 데 적절하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웃음 보따리』는 어둡고 그늘진 전쟁기 상황에 웃음을 선사함으로써 카타르시스와 아울러 상황에 대한 재인식으로 아동들을 이끄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다른 아동지들이 운문 가운데 동시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에 『파랑새』는 동시뿐만 아니라 동요에도 보다 폭넓은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우리 집앞 전봇대가 벌췌었습니다
팔을 들고 하루종일 벌췌었습니다

우리 집앞 전봇대는 겁쟁이에요
바람 불면 무섭다고 영영웁니다

우리 집앞 전봇대는 키다리예요
누가 놀며 공부않나 망을 봅니다

구슬치며 놀더라고 일러줄 때는
알미워서 전봇대에 코도 댑지요

물어뜯은 아가 꽃신 일러줬다고
바둑이도 전봇대에 오줌 싸니다

허리통에 빨랑팔랑 이름표 부친
우리 집앞 전봇대가 벌췌었습니다
- 손동인, 『별선 전봇대』(『파랑새』 제2권 제2호)

동요는 형식상 음악성이 강한, 어린이를 위한 정형시로서 그 시원은 노래였다. 곧 동요는 노랫말인 셈이다. 이러한 동요는 전래동요인 경우 아동의 욕구를 위한 비교적 소박한 노래노래로서 소극적인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면, 현대에 올수록 동요는 아동이라는 주체를 재인식하고 그 인간성 형성을 위해 필요한 장르로 부각되었다.³¹⁾ 이러한 동요는 동시의 모태가 되었다. 그리고 동요는 동시보다 율동적이며 음악적이다. 이러한 동요는 인용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활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소재 또한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서정봉의 『선달 그림』도 다양한 생활상에서 비롯된 동요의 면모를 맞볼 수 있는 작품이다.

날마다 한 장씩 뜯어 내어서
삼백예순 녀장을 뜯어내도록
날마다 나는 무엇을 했나
날마다 하는 무엇을 했나
한 장밖에 안남은 달력이지만
새해와 다시 바꿀 귀중한 한 장
삼백예순 다섯날을 무엇을 했나
삼백예순 다섯날을 무엇을 했나
- 서정봉, 『선달 그림』(『파랑새』~제1권 제4호, 17쪽)

그리고 김상옥의 『달밤』³²⁾과 이민영의 『이른 새벽』³³⁾도 맛깔스런 노래로서 동심을 헤아릴 수 있고, 유치환의 『기선』³⁴⁾도 이야기성을 가미함으로써 진취적인 다양한 동심의 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아울러 오영수의 『코스모스와 소년』(『파랑새』~제1권 제3호, 28~33쪽)은 소설로서 소년과 소녀의 가슴 따뜻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31) 이재철, 앞의 책, 『세계아동문학사전』, 76쪽.

32) “할머니 제삿날 밤에/혼자 세수를 한다//대야에 뜬 달을 떠서/혼자 세수를 한다 //달은 산산이 깨어져도/다시 금가지 않는다//세숫물은 흐리어져도/달은 그냥 마알깡다.”(김상옥, 『달밤』, 『파랑새』~제2권 제7호, 35쪽)

33) “전봇대가 잉잉거리는/이른 새벽/어머니는 물을 길러/사알작 아기 몰래 일어났다//아랫골에서는/기적소리가 요란했다//찬바람 속에/어머니 발자국 들리지 않고/아기가 “엄마...”하고/깨어났다//교회당에서/종소리가 울려왔다.“(이민영, 『이른 새벽』, 『파랑새』~제1권 제4호, 78쪽)

34) “돈대에 올라 항구를 내려다 봅니다./가지각색의 크낙한 외국 기선들이 바다 안팎으로 수타게도 많이 와 몸을 쉬이고 있습니다./저 기선들이 저마다 먼 바다를 외줄기 연기를 뿜으며 건너 오노라 얼마나 외로왔겠습니까?//가도 가도 끝 간 데 없는 망망한 가운데를 아무도 들어 주는 이 없는 뚜우 뚜우 기일게 울리는 제 고동소리를 제가 들으며 어찌다 하늘 끝에 반가운 다른 배의 그림자를 보아도 어느새 그만 서로 잃고 말 것입니다./저 배를 타면 먼 외국 항구로 갈수 있겠지요./나도 가 보고 싶습니다./그 낮 설은 외국 항구로 가서 나라를 그리워하는 소년이 되고 싶습니다.”(유치환, 『기선』 『파랑새』, 제2권 제2호, 36쪽)

이렇듯 『과랑새』는 전쟁기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발간된 아동 종합지로서 무엇보다 전쟁기에 임하는 아동들의 동심을 곤추 세우는 데 적절하게 기여하였다. 무엇보다 『과랑새』의 의의는 전쟁기에 보인 지역문화적 대응방식을 매체로써 보여 준 적절한 예라는 사실이다. 출향인이든 타향인이든 대부분 외부인들에 이끌려 만들어진 『소년세계』와 『어린이 다이제스트』에 비해 『과랑새』는 김용호와 손동인을 중심으로 지역 문인의 손길에 의해 경남·부산지역문단 내 아동문학의 역할을 수행하려 한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랑새』가 피난지문단에서 미천한 아동문학의 입지를 충분히 회복시키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후 최계락 등으로 이어지는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기저로 작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V. 마무리

1950년대 전쟁기 한국문학은 피난문단의 성격에 걸맞게 상당히 역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특히 문학인의 출입이 잦았던 터라 지속적인 문학실천을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피난문단이 형성되면서 마련된 경남·부산지역의 아동문학 매체발간 경험은 각별하게 읽힌다. 실제로 전쟁기 한국문학은 경남·부산지역 문학이라 할 만하다. 이 논문은 『소년세계』와 『어린이 다이제스트』, 『과랑새』를 대상으로 1950년대 전쟁기 피난지에서 발간된 아동문학 매체의 현황과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전쟁기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소년세계』는 이원수 주재로 1952년 7월 피난지 대구에서 발간된 종합 아동잡지이다. 이 잡지는 아동의 성정을 옹호하는 순문예지적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문예란 이외 교양·생활란에서는 독자와의 소통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대중성을 가미하고 있었다.

『소년세계』가 이원수 주재로 발간된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우선, 이원수가 경남지역 출신의 문학인뿐만 아니라 자신과 친밀한 외부 필진을 두루 참여시켰다는 사실에서 그의 문단 권력이 전쟁기 아동문학 매체에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원수가 광복기에 이미 우파 아동문학 매체가 꽃을 피웠던 대구를 선택한 점은 전쟁후 남한 그가 과거 원죄를 청산함과 동시에 나름의 문학적 입지를 확보하는 데 적절하였을 것이다. 그의 아동문학이 갖는 동심천사주의적 특징은 전쟁 전 이원수가 보인 좌파적 성향을 무마시키고 나아가 전쟁 후 이원수의 문단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셈이다.

둘째, 『어린이 다이제스트』는 당시 대중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한국판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모방하여 나온 아동지로서, 1952년 부산에서 창간호를 낸 뒤 약 1년 뒤 종간되었다. 강소천이 주간으로 매체발간을 주도했던 만큼 기독교적 세계관을 두드러지게 표출하고 있었으며, 피난지역 이외의 외부 문인들이 필진으로 참가한 종합 아동지였다. 강소천은 『아이생활』과 같은 잡지 발간을 의도한 듯하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14호로 종간된 것도 그렇고, 전시하 임시수도에서 발간한다는 사실이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터를 다지는 데 큰 공헌을 한 점은 높이 살 만하다.

셋째, 『파랑새』는 1952년 9월에 부산에서 발간된 아동 종합지이다. 김용호의 주간으로 교화성과 시사성을 바탕 삼아 교육적 의도 아래 간행된 종합 아동지였다. 『파랑새』의 가치는 무엇보다 김용호와 손동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 문인의 손길에 의해 피난문단 내 아동문학의 역할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려 한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물론 『파랑새』가 피난지문단에서 미천한 아동문학의 입지를 회복시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후 최계락 등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운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의 기저로 작용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파랑새』가 전쟁기 지역문화적 대응방식으로써 아동문학 매체 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은 아동문학사에서 새로운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전쟁기에 아동문학이 각별한 이유는 전쟁기라는 역사적 고난기에도 미래의 역사를 이끌어 갈 ‘아동’에 관심을 두고 매체를 발간했다는 점 때문이다. 아동문학의 독자가 아동이나 동심을 가진 아동적 성인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아동문학은 한국전쟁기 혼란상을 해명하고 나아가 민족적 전망을 예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학적 실천이었다. 이처럼 전쟁기 피난지에서 발간된 세 매체 모두 경남·부산 지역문학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며 한국 아동문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셈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전쟁기 아동지에 발표된 대부분의 작품들은 전쟁의 비극 상에 대한 회의, 참담한 시대상을 묘사한 안이한 현실도피, 훈계 교육 일변도의 어투들을 아동들에게 무책임하게 던지곤 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 현실패배의식, 열등감, 허무감, 도덕성 타락들은 아동문학에까지 스며들어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던 셈이다.

전쟁기에도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킨 것은 삶의 건강성, 나아가 문학의 건강성을 잊지 않은 데서 비롯된 소중한 문학적 자산이다. 이는 인간과 나아가 사회, 나아가 우주 전체 만물에 대하여 무한한 사랑과 원초적 심성으로 숭고한 삶의 자세를 추구하는 것이 동심이고, 이러한 동심은 아동문학의 근간이 됨은 물론이다. 피난지 부산과 대구에서 전개된 아동문학의 다양한 역장들은 지역매체의 운동의 양상, 지역문단의 재편 과정과 특정 문인의 문단 장악 과정, 문인들의 진퇴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각별하게 읽힌다.

주제어 : 한국전쟁, 경남·부산 지역문학, 피난문단, 아동문학, 아동매체, 『소년 세계』, 『어린이 다이제스트』, 『파랑새』, 이원수, 김용호, 손동인, 최계락, 김원룡, 강소천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소년세계』~제1호(1952년 7월호)~제13호(1953년 7월호), 대구:고려서적주식회사
- 『어린이 다이제스트』~제1호(1952년 9월호)~제2권 제12호(1953년 12월호), 부산:다이제스트社
- 『과랑새』~제1권 1호(1952년 9월호)~제2권 제2호(1953년 2월호), 부산:협동문화사

2. 날책

- John Rowe Townsend, 『어린이 책의 역사』 I (강무홍 옮김), 시공사, 1996
- Paul Hazard, 『책·어린이·어른』(석용원 옮김), 새문사, 1980
- 강경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1998/3쇄
- 김용희, 『동심의 숲에서 길찾기』, 청동거울, 1999
-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 박목월 엮음, 『강소천아동문학독본』, 을유문화사, 1961
- 방정환, 『어린이를 위한 마음』/소과아동문학전집 별권, 동양출판사, 1966
- 사전편찬위원회 엮음, 『韓國兒童文學家人名辭典』, 보리밭, 1986
- 원종찬,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비평사, 2001
- 윤석중아동연구소에서 낸 『내가 겪은 이번 전쟁』, 박문출판사, 1953
- 이기윤, 『전쟁과 인간』, 한샘, 1992
-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문운당, 1967
- 이재철, 『한국아동문학연구』, 개문사, 1983
- 이재철, 『韓國現代兒童文學史』, 일지사, 1978
- 정선혜, 『한국 아동문학을 위한 탐색』, 청동거울, 2003
- 최기숙, 『어린이 이야기, 그 거세된 꿈』, 책세상, 2001

최지훈, 『어린이를 위한 문학』, 비룡소, 2001

3. 낱글

- Klaus Doderer, 『아동문학에 나타난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한국아동문학연구』7, 한국아동문학학회, 1997
- 공재동, 『이원수 동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1990
- 구중서, 『6·25와 한국문학』, 『삶의 자리를 찾아서』, 동천사, 1986
- 권정생, 『아동문학이 외면했던 고난 속의 동심』, 『우리어린이문학』,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위임, 지식산업사, 1993
- 김기완, 『전쟁과 문학』, 『문예』 12호, 1950년 12월호
- 김상욱, 『어린이문학의 특성과 어린이문학의 생활화』, 『문학교육학』8,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 김승환, 『분단문학과 분단시대』, 『분단문학비평』, 청하, 1987
- 김요섭 외, 『童謠와 詩의 展望』, 『아동문학사상』7, 보진제, 1972
- 김요섭, 『어두운 세계를 위한 兒童文學』, 『동광』 6권 4호, 한국복지재단, 1962
- 김원일, 『‘고향’과 ‘육이오’란 무엇인가』, 『문학정신』 1987년 4월호
- 김재홍, 『6·25와 한국문학』, 『시와 진실』, 이우, 1984
- 김지은, 『한국 근대 현실주의 동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1999
- 남미영, 『강소천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0
- 문선영, 『1950년대 전쟁기 장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2002
- 박춘희, 『兒童文學장르論』,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4
- 박태일, 『1950년대 한국 전쟁시 연구』, 『경남어문논집』 제5집, 경남대 국어국문학과, 1992. 12
- 신영덕, 『한국전쟁기 종군작가 연구』, 고려대 박사, 1993.12
- 이영호, 『분단국가에서의 아동문학』, 『한국아동문학연구』6, 한국아동문학학회, 1996
- 이원수, 『아동문학의 방향』, 『아동문학』6, 배영사, 1963
- 이원수, 『戰時中の 『소년세계』와 文學運動』, 『현대문학』 1965년 8월호
- 임궁재, 『전시하의 한국문학자의 책무』, 『전선문학』 창간호. 1952년 11월호.

임현영, 「6·25와 분단에 따른 실향민」, 『우리문학』~제1호, 물레, 1986. 12

임현영, 「6·25의 문학사적 의의」, 『문학의 시대는 갔는가』, 평민사, 1988

임현영, 「전쟁 속의 인간상」, 『월간문학』~1969년 10월호.

전혜자, 「전시문학과 작가의식」, 『한국의 전후문학』, 태학사, 1991

조영암, 「동란중의 문단개관」, 『자유예술』~1952년 11월호.

<Abstract>

A Study on the Refuge Literary Circles of
Wartime in 1950s and the Media of
Children's Literature in Gyeongnam · Busan
District

Moon, Sun-Young

The Korean literature of wartime in 1950s had the remarkably dynamic featur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refuge literary circles. Especially, the continuous literary practice couldn't be copied because of the frequent coming and going of the literary people. Like that, the experience of media publication on children's literature which was established in Gyeongnam · Busan from the formation of refuge literary circles was unique. Actually, it couldn't be to overstate that the Korean literature of wartime was the literature in Gyeongnam · Busan. This study seeks to survey the meaning of children's literature in Gyeongnam · Busan through defining the contemporary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literature, focusing on Youth World, Children's Digest, and Bluebird which were published in 1950s.

First, Youth World was the general children's magazine which was supervised by Lee, Weon-Su and published in refuge district, Daegu, July, 1952. This magazine had the feature of pure literary art which advocated the children's temperature. But this had the popularity by preparing the communicative structure in culture and living section.

The fact that Youth World was published by the supervision of Lee, Weon-su calls for the attention from two aspects. Above all, we can

presume how strong his literary power affected the media of children's literature from the fact that he was the literary person from Gyeongnam district and the external pen club who were acquainted with him were participated. And the fact that he chose the district, Daegu, where the right-wing children's literature already bloomed guaranteed that he paid off the original sin of the past and secured his own literary location. The characteristics of angelic children's mind which he showed in his children's literature pacified the left-wing features which was his personality before the Korean War and contributed to the security of his literary location as well.

Second, Children's Digest was the general children's magazine which imitated Reader's Digest of Korean version which attracted the public, and this was published first in Busan, 1952 and discontinued in about 1 year. The fact that Kang, So-Cheon superintended this media publication meant that this had the dominant feature of Christian view of the world. And the external literary club participated the publication of this magazine. Kang, So-Cheon intended to publish the magazined like Children's Life, but his intent wasn't fully realized, the reasons of which was caused from the fact that this magazine was stopped at 14th number and the social situation that this was published under the war was great burden. affected 14. But afterward, this contributed to the found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in Kyeongnam · Busan.

Third, Bluebird was the general children's magazine which was publish September, 1952. This magazine which was supervised by Kim, Yong-Ho was published under the educational intention on the basis of edification and current topics. The value of Bluebird, above all, was that this independently practiced the role of children's literature within the refuge literary circles through the hands of district literary people, such as Kim, Yong-Ho and Son, Dong-In. Of course, Bluebird didn't fully recover the humble loc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in the refuge literary circles, but operated as the found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in Gyeongnam · Busan where the literary people like Choe, Gye-Rak fully bloomed the children's literature afterward. Especially, Bluebird had the new meaning of the history of children's literature in that this magazine was the kind of the media movement of children's literature as the confrontation way of district literature in the wartime.

The marked reason of children's literature in the wartime is that the literary people published the media, being interested in 'children' who would lead the history of the future in spite of the historically difficult period like war. When we consider that the readers of children's literature are children, or adults who cherish the children's heart, the children's literature was very important literary practice which dissolved the confusion of the Korean War and furthermore predicted the national prospect.

Key Words : Korean War, District Literature in Gyeongnam · Busan, Refuge Literary Circles, Children's Literature, Children's Media, 『Youth World』, 『Children's Digest』, 『Bluebird』, Lee, Weon-Su, Kim, Yong-Ho, Son, Dong-In, Choe, Gye-Rak, Kang, So- Cheon